

## “신실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현장 목회자의 최대 목표이자 관심사는 두말할 것 없이 ‘교인 돌봄’이다. 하지만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있어야 한다’. 짧지만 강렬했던 7년간의 목회에서 나 역시 교인 출석 여부에 울고 웃었다. 교인 한 명이 내 목숨처럼 소중했고, 혹시나 교회를 떠날까 노심초사했다. 교회에는 교인이 있어야 ‘교회(教會)’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성된다. 빈 듯한 건물이 있어도 교인이 없다면 교회는 아니다. 반대로 건물 없이도 교인만 있다면 ‘가르침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연합’인 교회가 성립된다.

교회 출석인 수, 특히 청장년층 교인 수 급감으로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대위기를 맞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미 정설이다. 교인 수 급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복합적으로 유착되어 있어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교회의 암울한 미래로 인해 목회자들은 극도로 불안하다. 그런데 정말 불안이 부정적으로만 기능할까?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는 불안의 원

인을 의식 차원에서 인지 가능한 ‘현실불안’과 인지 불가능한 ‘신경증적 불안’으로 구분하였다<sup>1</sup>. 일반적으로 불안은 불쾌를 형성하는 감정으로 인식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자 ‘무조건 피하고 싶은 공포 원인’으로 여긴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이미지로 떠올려보면 다리를 떨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심하면 몸에 경련이 일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모습 등 부정적인 모습들이 연상된다. 불안은 신경증(불안이 행동화로 이어지는 증상)<sup>2</sup>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에 긍정적으로 보기란 쉽지 않다.

트라우마 역시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이다.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이나 상황을 만나면 극심한 불안을 겪고 고통을 호소한다.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상처 입었던 당시 기억에 대한 회상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작용이 고통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은 단지 ‘나를 해치는 나쁜 감정’이 아닌, 분명 그 안에 순기능이 있다.

### 짐작하지 말고 들어보기

불안은 확실한 목적과 그에 따른 의지, 그리고 기대가 있을 때에만 등장한다.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한 학생과 준비는커녕 시험이 있는 줄도 몰랐던 학생 중에 누가 더 불안할까? 당연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이다. 시험 성적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교인 급감이

라는 이슈 앞에서 불안해하는 목회자들은 목회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 교인 돌봄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이 불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교인들과의 관계, 교회를 점차 떠나가는 교인들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목회자들 역시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 ‘대화하기’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반적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욕구가 교회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을 다시 교회로, 그들의 발길을 다시 예배당으로 돌리는 방법은 이론상 매우 간단하다. 대화를 통해 목회자가 그들의 요구와 소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지면 된다.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목회자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공감과 경청이 메마른 시대다. 말하기보다 듣기, 입보다 귀가 좋은 목회자가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이는 영혼 돌봄의 일꾼이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 아닐까. ☎

1 Sigmund Freud, “Die Angst,” *Gesammelte Werke,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Bd. XI, (Frankfurt: Fischer Verlag, [1917] 1966), 407-409.  
2 Sigmund Freud, “Hemmung, Symptom und Angst,” *Gesammelte Werke, Werke aus den Jahren 1925-1931*, 3. Aufl., Bd. XIV(Frankfurt: Fischer Verlag, 1972), 155-156 & 198.

고유식 교수  
호서대학교 목회상담학